

커뮤니티시네마 네트워크 2020

; 자립과 연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모험

FORUM & PARTY

2020. 6. 18 / 14:00

인디스페이스

- 03 <커뮤니티시네마 네트워크 2020> 타임테이블
- 04 발표01. 국내 커뮤니티시네마의 흐름과 발전 방향
- 권현준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 16 발표02. 커뮤니티시네마 네트워크 추진 보고
- 김남훈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이사장

[부록] 국내외 커뮤니티시네마 활동 사례

- 30 01. 모퉁이극장
- 35 02. 오오극장
- 44 03. 원주옥상영화제
- 58 05. 일본커뮤니티시네마센터

<1부> 커뮤니티시네마 네트워크 포럼

사회 및 진행: 최낙용 전국예술영화관협회 대표

13:30 - 14:00	접수 및 안내
14:00 - 17:00	발표1 :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의 흐름과 발전 방향 · 권현준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발표2 :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추진 보고 · 김남훈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이사장
	커뮤니티 시네마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토론 [제안발표자] · 원승환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관장 · 이준희 중구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본부장 · 최낙용 전국예술영화관협회 대표
17:00 - 17:30	마무리 및 네트워크 파티 장소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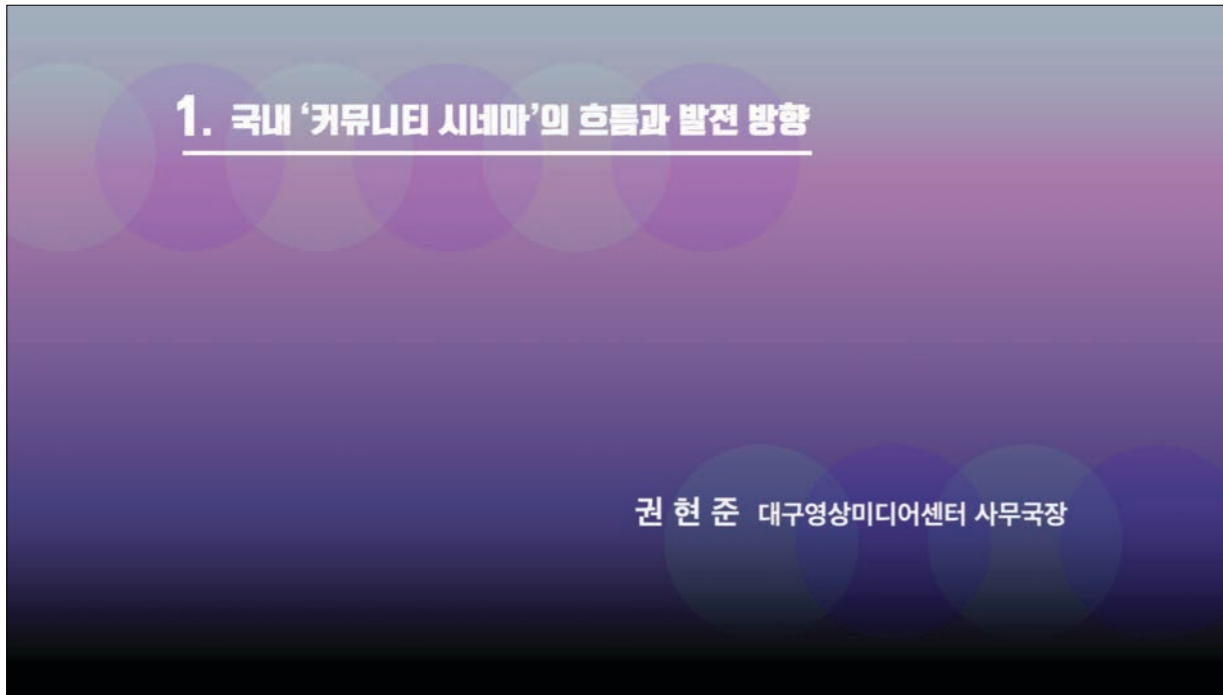
<2부> 네트워크 파티

17:30 - 20:00	저녁식사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20:00 - 22:00	자유 네트워킹

22시 이후에는 비공식으로 이어집니다.

발표01. 국내 커뮤니티시네마의 흐름과 발전 방향

권 현 준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1. 해외 '커뮤니티 시네마'의 개념

'커뮤니티 시네마'의 보편적 개념

1. 해외 '커뮤니티 시네마'의 개념

'커뮤니티 시네마'의 보편적 개념

"Andere Filme anders zeigen / 다른(새로운) 영화는 다른(새로운) 틀 안에서"
〈코뮤날레 키노의 설립 모토〉

"지역의 '코뮤날레 키노'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적인 의의를 갖는다"
〈프랑크푸르트 판결, 1971〉

- 1970년대 초, 'New German Cinema'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영화를 새로운 틀 안에서 보기를 희망하는 시민과 관객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등장한 'Das Kommunale Kino (Community Cinema)'
- 1971년,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일반 상업영화관이 지역 내 '코뮤날레 키노'를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법원은 지역에서의 문화적 공공성을 이유로 '코뮤날레 키노'의 손을 들어주고 이후, '커뮤니티 시네마'는 공식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발전

1. 해외 '커뮤니티 시네마'의 개념

해외 '커뮤니티 시네마' 특징

독일	영국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0년대 초, <뉴 저먼 시네마>와 매를 같이 하며 새로운 방식의 영화를 위한 새로운 영화관을 모토로 탄생 <코뮤날레 키노 연방 협의체>에 가입된 수는 140여개이며 '비영리 상영관', '공립상영관', '동아리 상영관' 등 공간적 개념을 중시 <코뮤날레 키노 연방 협의체>는 영화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 및 공동 배급 사업 등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영화산업진흥 정부기구인 'UKFC'의 기능이 영화 민간 단체인 'BFI'에 이관되면서 산업 중심의 영화 진흥 정책이 문화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 공간적 특성과 활동적 특성 모두를 '커뮤니티 시네마'의 범주 안에 두고 있으며 BFI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 공교육 연계, 지역영화관 활성화, 배급지원 및 아카이브 사업 등을 수행 'BFI'의 재정은 상당 부분 정부기금을 통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0년대부터 이어 온 전국 각지의 '미니씨어터' 운동 및 지역 '시네마테크'운동,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자주상영활동 간 연대와 가치를 공식화하고자 2003년 <커뮤니티시네마 선언> 및 '커뮤니티시네마센터' 설립 계획 발표, 2009년 전국협의체로서의 'NPO 커뮤니티시네마센터' 발족 현재 전국 88개 영화단체들이 가입, 미니씨어터를 비롯, 시네마테크, 지역 영화제, 자주상영 단체 및 공공시설이 참여, 공간적 개념과 활동적 개념 모두 포괄

영진위 <커뮤니티 기반 영화관람문화 활성화 연구> / 영진위 <공공성영관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

1. 해외 '커뮤니티 시네마'의 개념

일본의 '커뮤니티 시네마 선언'

• 지역의 풍부한 영화 환경 창조를 위해

2001년 12월 7일에 공포된 [문화 예술 진흥 기본법]에서는 '영화'는 국민 문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미디어 예술의 하나로 그 진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영화 영상 문화의 풍요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영화 환경의 지역적 격차와 상업작의 획일화를 피하고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폭 넓은 관객층을 형성하고 새로운 작가의 등장을 촉진하여 영화사적으로 끊임없는 진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이 새로운 공공적 상영 활동인 '커뮤니티 시네마'를 통해 지역의 풍부한 영화 환경의 발전을 실현해 갈 것을 선언합니다.

1. 해외 '커뮤니티 시네마'의 개념

일본의 '커뮤니티 시네마 선언'

• 커뮤니티시네마의 재정

커뮤니티시네마의 공공적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 정부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공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커뮤니티시네마는 공적 지원 이외에 수익금, 회원제 운영을 통한 회비, 기부 및 후원금 등을 예산으로 편성 운용

• 커뮤니티시네마의 공공지원 근거 (공공적 의의)

커뮤니티시네마는 지역에 밀착한 활동이며 시민들의 영화문화 접근성 및 참여의 권리, 영화영상의 교육과 실천, 나아가 지역의 영화영상문화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적지원의 주체가 되어 시책의 입안과 실행하기를 기대함
이는 다음 네 가지 분야로 요구됨
<지속적인 상영활동 보장>, <다양한 영화작품의 상영>, <다양한 대상을 위한 접근성>, <교육적 사명 실현>

출처 : <http://jc3.jp/> <일본커뮤니티시네마센터 홈페이지>

1. 해외 '커뮤니티 시네마'의 개념

일본의 '커뮤니티 시네마 선언'

• 커뮤니티시네마의 사명

지역 간 영화 환경 격차 해소 및 영화문화의 다양성 확보 / 다양한 형태의 영화 커뮤니티 활동 지원 / 미디어 교육 지원 / 지역사회 공헌

• 커뮤니티시네마의 정의

커뮤니티시네마는 반드시 영화관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공적 목적의 영화상영 활동 주체로서 지역에 뿌리 내린 활동 주체를 의미

• 커뮤니티시네마의 형태

시민 자발형 / 영화제 형 / 도시재생형 / 행정주도형

• 커뮤니티시네마의 법인격

커뮤니티시네마는 이익 배당을 제공하지 않는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NPO) 또는 공익법인이어야 함

2.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의 흐름

국내에서의 초기 '커뮤니티 시네마' 개념

- 2000년 중후반, 한국 독립영화인들을 중심으로 '공동체 상영'의 시도와 확대 및 '독립영화배급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승환 당시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이 일본 '커뮤니티시네마센터'의 사례를 국내에 소개
- 2000년 초중반, 문화예술계에서는 '공공미술'의 방향성 전환의 모색과 사회적 경제 영역이 발전하면서 시민접근성과 지역 밀착성을 강조하는 '커뮤니티 아트', '커뮤니티 디자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등,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00'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시도

-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 사업 중단으로 추진의 탄력을 받지 못함

사회적경제 영역 및 지역문화 사업과 결합하여 관객과 시민 주도의 <커뮤니티 시네마> 활동 등장

-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 제정 및 사회적경제의 발전으로 각 지자체별로 지원과 활성화 건인

2.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의 흐름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커뮤니티 시네마' 등장

부산 '모퉁이극장'

- 2011년 설립, 2012년 5월 부산시 중구 중앙동 40계단 앞에 영화상영 및 활동 공간 개소 (최초의 커뮤니티시네마 공간)
- 부산시 중앙동 문화재생연대그룹인 '또따또가' 프로젝트에 참여, 시민과 관객 중심의 다양한 영화영상문화 활동 추진 및 영화 커뮤니티 확산 운동 수행
-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BiFF> 프로그램 기획 참여 및 2020년 BNK아트시네마 상영관 운영 수탁 중



2.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의 흐름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커뮤니티 시네마' 등장

상설영화관 '오오극장'

- 2015년 개관한 지역 최초의 민간 주도 '독립영화전용관' (대구경북영화영상사회적협동조합)
- 커뮤니티 시네마의 가치를 걸고 시민 조합원 및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비롯,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9년부터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수탁 운영 중



2.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의 흐름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커뮤니티 시네마' 등장

모극장과 '팝업시네마'

- 2013년 4월,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별명 : 모극장)' 설립
- 영화공간 '늘씨네' 운영 및 다양한 비극장 영화상영회 및 영화제와 커뮤니티 프로그램 진행
- 2015년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네마 활동을 위한 공동체상영 온라인 플랫폼 '팝업시네마 (popup cinema.kr)' 구축 운영



2.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의 흐름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커뮤니티 시네마'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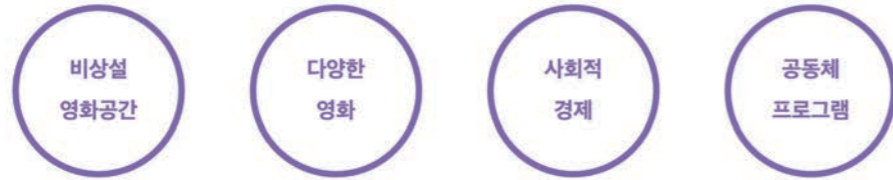
'극장판'과 '일시정지시네마'

- 서울 이태원의 '극장판'과 춘천의 '일시정지시네마' 모두 2016년 개관
- 독립예술영화를 사영하는 비극장으로 두 장소 모두는 단편영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 서로 다른 이유지만 운영 3년차인 2019년 폐관 ('일시정지시네마'는 재정 및 지역사회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극장판'은 재정적으로는 성과를 갖췄으나 초기 가치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2.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의 흐름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특징



- 다수가 소규모 비상설 공간으로 '카페' 등으로 영업신고, 상영일수의 제약, 영진위 전용관 지원 사업에서 배제
-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위주의 프로그램, 장편수급이 어려워 단편영화 상영이 활성화
- 낮은 재정자립도 (평균 3년 이내 폐업)로 인하여 시민사회와 비영리 프로젝트 중심의 활동과 사회적경제 지원 참여
- 위 세 가지 특성을 고려, 영화비평과 토론, 미디어교육, 기타 생활문화와 연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2019 총무로영화축전 <토론회>

3.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의견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요구와 의견

김혜준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 센터장

- 영화진흥위원회의 정책적 한계가 분명
 - 현재의 영진위 정책 기능과 중앙정부의 방향을 취합해 볼 때, 영진위에서 '커뮤니티 시네마'를 직접 지원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커뮤니티 시네마'의 활성화로 파급 될 산업적이고 정량적인 효과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기존 영화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활동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판단

2019 총무로영화축전 <토론회>

3.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의견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요구와 의견

영진위 <커뮤니티 기반 영화 관람 문화 연구>

- 법적 지원 및 제도 마련
 - '독립서점' 정책과 비교, 법적 근거로 보호 받지 못하는 '비극장'들을 위한 지자체 조례 및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필요
 - 비극장 상영을 위한 별도의 저작권 제도 운용 필요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비극장' 상영을 위한 예외 조항 신설 필요
-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 독일 '코뮤날레키노'의 <코뮤날레 키노 회의> 및 일본 '커뮤니티시네마센터'의 <전국커뮤니티시네마회의>와 같은 '커뮤니티시네마' 단체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영진위 지원 등 제안

연구자 : 정민선, 박주영

2019 총무로영화축전 <토론회>

3.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의견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요구와 의견

조영각 <영화진흥위원회> 전 부위원장

-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 국내에서 초기 시작되고 진행된 '커뮤니티 시네마'에 관한 논의와 '일본커뮤니티시네마센터'와의 교류가 중단되었던 것은 그 이슈를 제기했던 독립영화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일정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
 - 80년대 '문화학교 서울'을 비롯하여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객운동의 흐름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사업 등으로 해결 되기에는 여전히 블랙리스트 등 정책 실패에 책임이 완료 되지 못하였으며, 우선적으로는 이러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봄

2019 총무로영화축전 <토론회>

3.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의견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요구와 의견

윤진호 <중구문화재단> 사장

• 영화 프로그램의 다양성 필요

-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에서 영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영화인들이 지역문화에서 요구 되는 부분을 살필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육' 및 도서관과 같은 지역문화시설의 사업 방향성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문화행정은 영화라는 개별적 장르의 지원보다는 영화를 통해 파생될 다양한 시민들의 만족과 효과를 보다 중시하므로 상호 협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식의 상영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

2019 충무로영화축전 <토론회>

3.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의견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요구와 의견

안태호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이사

• 지역문화에서의 거버넌스

- 중앙에서 전달되던 기존의 거버넌스와 달리, 지역에서 생성되는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활동가 민관 협력이 이뤄져야 함
-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와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당위와 의무를 넘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서로의 원하는 바가 적극적으로 드러나며 지속하여 이어질 활동 계획이 필요함

• 최근 공동체 트렌드 주목

- 끈적이며 밀착적이던 기존 공동체에 관한 편견과 달리, 최근의 경향은 비대면적이고 상호 개입이 차단 된 형식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음.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의 방향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임.

2019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BIFF <Across the Cinema>

3.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의견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요구와 의견

신정호 <송파문화재단> 정책사업팀장

• 지역문화 정책의 방향에 관한 이해 필요

- 현재 영화와 관련한 정책 요구들은 실제로 지역문화재단에서 주목하거나 협력하기에 공급자적 관점으로 임함. 지역문화재단에서 '커뮤니티 시네마' 에 관련한 부분을 영화산업에 기여하는 요소로 접근해야 하는 지 또는 문화다양성 이슈로 접근해야 하는지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첫 번째 당위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 판단
- 현재 '교육' 또는 '인문학' 관련한 맥락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지역문화재단들과 협력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 되며 다양한 지역의 문화적 요구가 문화예술교육을 크게 주목하고 있음

2020 커뮤니티시네마 라운드테이블 : 초청 간담회

3.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의견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요구와 의견

이와사키 유코 <일본커뮤니티시네마센터> 사무국장

• '커뮤니티'의 중요성 부각

- 일본에서 초기 커뮤니티시네마 활동은 '커뮤니티' 보다는 '시네마'에 더 방점이 찍혀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는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영화'가 가진 기능과 역할을 더 확장해서 고민해야 할 필요와 계기가 있었으며 '시네마 엘 도호쿠' 프로젝트를 통해 지진 피해 지역 주민 대피시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주민 대상으로 영화상영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역사회에 주목하고 연대하는 영화활동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됨
(최근 '일본커뮤니티시네마센터' 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과 영화관을 대상으로 한 'Save the Cinema' 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2019 충무로영화축전 <토론회>

3.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의견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요구와 의견

김현수 <모퉁이극장> 대표

- 생활문화예술 활동 등 시민과 관객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
 - 다양한 시민관객활동이 유발 되기 위해서는 정책과 지원의 방식 등이 변화할 필요가 있음
 - 영화산업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영화영상문화를 포괄하는 확장 된 정책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생활문화예술 활동과 같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커뮤니티 시네마 단체 간 네트워킹
 - 지역 영화영상문화 활동가들은 영화계 안, 또는 지역문화 내에서도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단체 간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서로의 의지를 밝히고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가 이어져야 함

2019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BIFF <Across the Cinema>

3.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의견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요구와 의견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

- 공동이 소유하고 공동이 운영하는 공동체 영화관
 - 커뮤니티 시네마에서 '공동체'의 개념은 단순히 관객들이라고 설정하기 보다 커뮤니티시네마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라고 봐야하며 소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공동체성의 핵심이 달라질 수 있음
 - 협동조합은 공동의 필요한 목적에 따라 비즈니스와 결사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역의 영화관이 폐관하는 이유는 이윤이 남지 않아서이지만, 지역의 영화관이 유지되는 이유는 이윤과는 다른 공공적 목적이 있기 때문임
 - 한 개인이 소유하는 영화관이 아닌, '공동체성'이 성립될 때 커뮤니티시네마는 상업적 영화관의 대안과 새로운 흐름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거라 판단

2020 커뮤니티시네마 라운드테이블 : 초청 간담회

3.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의견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요구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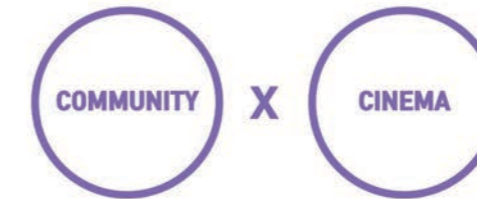
김성욱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램 디렉터

-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 커뮤니티 시네마의 활동 방향이 필요
 - 기존의 관객운동문화가 영화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면, 현재 커뮤니티시네마네트워크가 추진하는 방향은 기존의 영화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공동체들에게 영화를 소개하고 영화문화 활동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보이며, 이는 새로운 관객 활력을 만들어내는 긍정적 필요라고 판단
 - 그러나 각 이해관계자들의 생각들이 어찌보면 동상이몽처럼 다르다고 느껴지며 그 방향이 지역의 새로운 영화 활력을 조성하는데에 방향이 맞추어졌으면 좋겠음

2020 커뮤니티시네마 라운드테이블 : 초청 간담회

3.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의견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발전을 위한 요구와 의견



영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활력과 진흥 X 자치와 자립을 위한 연대와 협력 X 유의미한 대안적 문화산업 생태계

발표02. 커뮤니티시네마 네트워크 추진 보고

김 남 훈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이사장

2.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추진 경과 및 계획 보고

김 남 훈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이사장

1.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추진 경과 보고

경과 개요 : 2019. 10 ~ 현재

토론회

- 토론회 : 총 3차례에 걸친 토론회 개최를 통해 영화인들과 커뮤니티시네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담론 형성
- 사업준비 : 네트워크 준비 조직화 및 실질적인 사업에 필요한 자원 마련
- 개별회의 : 커뮤니티시네마 네트워크 이해당사자 개별 미팅 및 의견 수렴

사업준비

개별회의

1.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추진 경과 보고

세 차례의 포럼 및 간담회 개최



2019. 10. 8 / 부산문화재단 한성1918



2019. 11. 2 / 대한극장



2020. 4. 17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1.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추진 경과 보고

세 차례의 토론회 개최

어크로스 더 시네마
2019. 10

- 지역의 다양한 영화문화 활동을 '커뮤니티시네마' 개념과 가치 안에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총무로 영화축전
2019. 11

- 국내의 '커뮤니티시네마'의 구체적인 사례와 방향을 영화인 및 정책기관에 소개하고 연대체 설립에 대한 목표 공유

비공개 초청 간담회
2020. 4

- '커뮤니티시네마' 연대체 설립 추진의 취지와 기본 활동 방향 및 계획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전망을 청취

커뮤니티시네마 네트워크
2020. 6

- '전국커뮤니티시네마 네트워크' 조직의 구체적 활동 방향과 목표 비전을 공유하며 설립 계획의 선포와 다양한 단체의 참여 의지 촉진

1.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추진 경과 보고

세 차례의 토론회 개최



2019. 10. 8 / 부산문화재단 한성1918

•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BIFF <어크로스 더 시네마>

주요 의제 : 전국 커뮤니티시네마 단체 초청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시네마 연대체 설립의 필요성 논의
 참여 단체 : 전국 지역영화문화 활동 단체 30개팀 / 60명 참여
 발표 및 토론자 : 안태호 (도시와문화사회연구소 이사) / 김현수 (모퉁이극장 대표) / 고승현 (원주옥상 영화제 대표) / 민지연 (오렌지필름 대표) / 김남훈 (모극장 이사장) / 김재형 (모극장 사무국장) / 최낙용 (전국예술영화진흥연합회 대표)



1.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추진 경과 보고

세 차례의 토론회 개최



2020. 4. 17 /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 <커뮤니티시네마 네트워크 라운드 테이블>

주요 의제 : 커뮤니티시네마 네트워크 설립계획 공유와 진흥 방향을 위한 이해관계자 초청 간담회
 참여 단체 : 커뮤니티시네마 활동단체, 정책기관, 연구자, 이해관계자 총 13명
 발표 및 토론자 : 김해준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 센터장) / 최낙용 (전국예술영화진흥연합회 대표) / 박주영 (영화진흥위원회 연구원) / 김성욱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램 디렉터) /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 / 김남훈 (모극장 이사장) / 나일선 (포스트핀 대표) / 신정호 (송파문화재단 문화정책팀장) / 강선영 (에스아이코마드 대표) /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 정윤재 (빈로드 대표) / 김진숙, 김수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1.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추진 경과 보고

세 차례의 토론회 개최



2019. 11. 2 / 서울 대안극장

• 2019 충무로영화축전 <커뮤니티시네마 라운지>

주요 의제 : 일본커뮤니티시네마센터 초청 국내외 사례 발표 및 커뮤니티시네마 정책 부문 토론
 참여 단체 : 전국 지역영화문화 활동 단체 및 지역문화재단 등 109명
 발표 및 토론자 : 이와사키 유코 (일본커뮤니티시네마센터 사무국장) / 최낙용 (전국예술영화진흥연합회 대표) / 권현준 (대구경북영화영상협동조합) / 김현수 (모퉁이극장 대표) / 이계영 (아트하우스모모 큐레이터 대표) / 김남훈 (모극장 이사장) /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 / 조영각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1.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추진 경과 보고

활동 추진을 위한 사전 자금 조달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업기간 : 2020. 4 ~ 2020. 12
- 사업비 : 40,000천원
- 사업내용 : <전국커뮤니티시네마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추진 / 공동 마케팅 플랫폼 개발 / 공동사업 추진
- 참여 주체 :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 미디어펀드

• <연결의 가능성> 서울-지역 청년간 교류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 사업기간 : 2020. 5 ~ 2020. 12
- 사업비 : 70,000천원
- 사업내용 : 지역 커뮤니티시네마 설립 및 자립 운영 매뉴얼 개발 / 지역 커뮤니티시네마 지역문화거점공간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지역 커뮤니티시네마 회원 운영 모델 및 매뉴얼 개발
- 참여 주체 :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 GO-CINE 주식회사 / 모퉁이극장

1.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추진 경과 보고

커뮤니티시네마 단체 간 미팅

• 수시 진행 (온 오프라인 병행)

- 참여 단체 :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서울), 모퉁이극장(부산), 시네마라운지MM(목포), 대구경북영화영상협동조합(대구), 고씨네(원주), 무명씨네(전주), 자체휴강시네마(서울), 프리즘오브(서울), 닷뎃뎃필름(서울), 다락스페이스(서울)



1.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추진 경과 보고

경과에 대한 소결



- 네트워킹 : 협력과 연대체를 통해 보다 유의미한 일로서의 전환
- 지속가능성 : 활동의 누적을 통한 지역사회와 영화계의 지지
- 변화와 혁신 : 지속가능한 활동을 통해 지역과 영화문화, 나아가 영화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이끄는 변화를 주체

2. '전국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계획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설립 정관 전문(현장문) 초안

• 지속가능한 지역영화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 활동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문화권(Cultural Rights)'이라 하며, 대한민국은 2014년 3월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영화는 시민들이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문화활동이며, '커뮤니티 시네마'는 시민의 영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차별 없이 지역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점에서 지역 '문화권'의 증진과 발전을 위한 활동입니다.

'커뮤니티 시네마'는 소규모 영화관과 상영회를 지칭하는 단위의 개념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의 공공적 이익을 도모하는 다양한 영화 매개의 사회적 활동과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 사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 및 단체, 정부와의 협력 위에서 시작합니다.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는 이러한 '커뮤니티 시네마'의 자립과 지속을 연대하며 지역문화환경의 새로운 다양성과 지역 간 '문화권' 격차 해소, 나아가 공정한 영화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영화의 문화·사회·경제적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전국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계획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주요 활동 목표와 개념

• 커뮤니티 시네마의 정의

- '커뮤니티 시네마'는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의 공공적 이익을 도모하는 영화문화활동과 영화 매개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의미한다.
- '커뮤니티 시네마'에서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의 자치 개념에서 '지역', 다양한 인격의 조합으로서 '공동체'를 의미한다.
- '커뮤니티 시네마'에서 '시네마'는 영화관 등의 물리적 또는 단위적 개념이 아닌 다양한 영화 및 영화매개활동을 의미한다.

• 커뮤니티 시네마의 법인격 및 조직 형태

- '커뮤니티 시네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공공적 목적을 전제할 수 있는 법인격과 의사결정체계를 지향한다.
- '커뮤니티 시네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위해 '(사단)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 형태를 지향한다.
- '커뮤니티 시네마'는 공공적 목적 수행을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등)을 지향한다.

2. '전국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계획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주요 활동 목표와 개념

• 커뮤니티 시네마의 활동

-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차별 없는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지역의 다양한 영화문화활동과 프로그램 운영
- 독립·예술영화 등, 지역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영화상영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문제의 해결과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연대 문화활동과 프로그램 운영
- 젊은 세대 관객 발굴과 새로운 관객문화 형성을 위한 미디어 교육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지역사회와 영화문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과 회원 프로그램

2. '전국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계획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주요 활동 목표와 개념

•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의 재정

-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관련 법을 준수한다.
-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는 회원 단체 간 상호 거래 및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수입과 이에 대응하는 회비 수입, 국가 및 지자체의 공적 지원 수입, 민간에서의 후원금 및 지원금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한다.

•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관계

- 커뮤니티 시네마 단체 간 거버넌스 : 회원 간 상호 거래와 1회원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
- 커뮤니티 시네마 단체와 시민사회 거버넌스 : 다양한 시민사회 의사 체계 참여 및 협력 사업과 연대 정책 교섭 추진
- 커뮤니티 시네마 단체와 정부 간 거버넌스 : 국가 및 지자체와의 정책 교섭, 법(조례)의 제개정 청원, 자치를 위한 협력 사업 추진

2. '전국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계획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주요 활동 목표와 개념

•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목표

-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는 회원 간 협동과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상호 거래를 통한 활동의 자립 지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제활동의 규모화, 정책 개발 및 교섭 등을 통해 '커뮤니티 시네마'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 영화문화 증진을 목표로 한다.
-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는 회원 공동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
-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는 회원 간 공동사업 추진, 정책 교섭, 상호부조를 수행한다.

•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의 활동 범위

- 커뮤니티 시네마 단체의 활동 자립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대와 네트워크 활동
- 커뮤니티 시네마 단체 간 협동을 통한 공동사업과 공동 마케팅 추진 활동
- 커뮤니티 시네마 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정책 교섭 활동
- 커뮤니티 시네마 단체 간 상호 부조 및 자금 운용 사업 활동

2. '전국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계획

조직 구성

- 조직명 : 전국커뮤니티시네마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 조직형태 :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 법인격 : 비영리법인
- 의사결정기구 : 총회(1인 1표) → 이사회(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 운영위원회(활동별 소위원회) → 사무국
- 조합원 유형 : 생산자 조합원, 노동자(직원)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 소비자 조합원

구분	자격 및 내용	의무 및 혜택
생산자 조합원	• 조합에서 생산활동을 이용하는 조합원 • <지역활동 생산자 조합원> 과 <지역 매개자 생산자 조합원>으로 구분	• 조합의 운영 및 공동 사업 참여와 이에 따른 수입 • 출자 및 회비 납부 의무 (정관 및 규약으로 정함)
노동자 조합원	• 조합과 근로계약이 된 자로서 규약이 정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노동자	• 출자 및 회비 납부 의무 (정관 및 규약으로 정함)
후원자 조합원	• 조합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제공하는 후원회원 중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 규약으로 전체 조합원 대비 일정 규모 유지 가능 • 출자 및 회비 납부 의무 (정관 및 규약으로 정함)
소비자 조합원	• 조합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조합이 제시한 혜택을 받고자 하며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 규약으로 전체 조합원 대비 일정 규모 유지 가능 • 출자 및 회비 납부 의무 (정관 및 규약으로 정함)

2. '전국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계획

사회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이란?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
- 1인 1표에 따른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 다양한 이해관계자 구성, 배당의 제한, 비즈니스와 협의회 모두가 가능한 조직 구조

•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 조합의 목적사업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우선하는 '비영리 법인'격을 갖는 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과 운영 원리는 상당부분 비슷하나 배당의 완전 금지되며, 상호부조를 위한 다양한 기금 운용이 가능하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 가능

• 일반적인 협의회 조직과 차이점

- '협회', '협의회' 등의 일반적 협의회는 특정한 법인격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대정부 정책 교섭, 분쟁 조정 기능이 주된 목적사업이라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러한 Association의 기능과 함께 Business 활동을 함께 병행할 수 있음

2. '전국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계획

세부사업 1. 공동사업 부문 - 공동기획 영화제

• 커뮤니티 시네마 순회 영화제 (커뮤니티시네마 페스티벌) 개최

- 전국 각 지역에서 한 달 기간 내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되는 공동기획전 영화제 (2020년 9월~10 개회 추진)
- 2020년 전국 10개 지역 커뮤니티시네마에서 장편 기준 30~40여편의 선정작을 아카이브하고 이 중 지역별로 15편~20편 내외 상영
- 매년 연속 개최

• <충무로영화제> 협력

- 2019년 한국영화10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된 <충무로영화축전>의 연속 개최
- 전국 커뮤니티시네마들과 지역미디어단체들이 함께 참여, '영화상영', '워크숍' 및 다양한 영화문화행사 개최
-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문화재단 협력
- 매년 연속 개최

• 기타 다양한 기획전 개최

- 지역 커뮤니티시네마 단체 간 협력 기획전 (프로그램, 게스트 프로그램 등 공유) 수시 개최

2. '전국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계획

세부 사업 개요



- 공동사업 : 조합원 상호 거래에 부합하는 유무형의 상품, 서비스, 물류, 지식재산 및 정보 등의 유통과 공유사업을 공동으로 운영
- 네트워킹 : 조합원 간의 경제 문화적 교류와 담론 개발, 정보 공유와 공동 학습, 분쟁조정 등의 연대체 활동
- 정책교섭 :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법(조례)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대정부 활동 및 연구 활동
- 상호부조 : 기금 및 사회적 자원을 통한 조합원 간 내부 금융 등의 연대 부조 활동

2. '전국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계획

세부사업 1. 공동사업 부문 - 지역문화거점공간 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커뮤니티시네마' 공간에 다양한 시민 유입과 체류 조건 증대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 지역 간 복제와 교류가 가능한 콘텐츠의 표준 모델 개발을 통한 '커뮤니티시네마'의 자립 운영 방안 제시

• 주요 활동

- 공간서비스디자인 : <커뮤니티 스페이스> + <카페테리아> + <굿즈숍>이 결합된 공간디자인 및 콘텐츠의 소셜 프랜차이즈
- 자립운영 매뉴얼 제작 : 커뮤니티시네마의 자치와 자립을 위한 설치 및 운영 매뉴얼 제작 교육 및 배포 (독일 코뮨날레 키노 '영화관 초보를 위한 가이드' 참고)
- 회원 유치 및 운영 : 지역별 커뮤니티시네마 회원 운영 매뉴얼 제작 및 지역간 통합 회원제 운영

• 시범사업 및 프로토타입

- 2020년 12월까지 시범사업 진행 (서울시 청년 지역교류 지원사업)

2. '전국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계획

세부사업 1. 공동사업 부문 - 연대 비즈니스

• 목적 및 필요성

- 각 지역 단체별 개성 및 특성과 사회적 자원을 공유, 지역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대 비즈니스 활동 수행
- 영화 작품의 수급 및 프로그래밍 역량, 시설 및 기자재, 상영 매개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공유를 통한 지역 역량 강화
- 공동의 홍보 및 마케팅 플랫폼 운영

• 주요 활동

- 영화 작품 프로그래밍 공유 : 단체 간 공통의 필요를 바탕으로 공동구매 방식의 영화수급과 공동 프로그래밍, 상영 중심 단체의 순회 상영회 유치
- 시설 및 기자재 : 야외 상영 및 특정 형식의 상영회에 필요한 기자재 및 기술 공유
- 상영 매개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 : 특정 강사 및 영화해설 프로그램 등 지식 인프라 공유와 파견
- 공동 마케팅 플랫폼 운영 : 지역 커뮤니티시네마, 단체별 상영프로그램 및 상영자, 상영회 예약, 영화작품 리뷰 및 큐레이션 메타 비평 등의 콘텐츠가 통합된 공동 마케팅 플랫폼 운영 (기 개발, 2020년 9월 중 오픈 예정)

2. '전국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계획

세부사업 3. 정책 교섭 부문

• '커뮤니티 시네마'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선 제안 추진

- 연간 120일 이내, 연속 30일 이내로 설정된 비상설영화관의 운영 방안 등의 제도 개선 제안
- 커뮤니티 시네마와 공공적 목적의 영화상영과 관련한 법률 제정 제안
- 지자체 별 '공공상영회'에 지역 커뮤니티 시네마 연계 방안 및 관련한 인센티브 조례 제정 제안

• '커뮤니티 시네마' 관련 정책 및 제도 제안 추진

- '전용관' 지원사업과 별개로 지역 사회와 문화 공헌을 위한 영화상영관의 인센티브 추가 지원안 제안
-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역량과 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마련 제안
- 각 지자체 별 생활문화 기반 활동에 영화 관련 커뮤니티 활동의 필요 및 효과성 제안

• 정책 거버넌스 제안 추진

- 각 지자체의 영화문화 관련 정책 취합, 지자체 - 영진위 간 지역영화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역할과 기능 제안

2. '전국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계획

세부사업 2. 네트워킹 부문

• 가칭 <전국커뮤니티시네마회의> 개최

- 전국 커뮤니티시네마 단체 간 담론 공유 및 네트워크 신규 비즈니스 모색을 위한 전체 회의 개최 (일본 '커뮤니티시네마 전국 회의', 독일 '코뮤날레 키노 회의' 참고)
- 연 1회, 지역 '커뮤니티시네마'를 순회하며 개최

• 국제 '커뮤니티 시네마' 연대 네트워크 제안

- 일본 <커뮤니티시네마센터>, 영국 <BFI>, 독일 <코뮤날레 키노 연방 협의체> 등과 연대 및 협력 교류
- 아시아 국가를 비롯 다양한 국가의 관객 단체 및 영화 단체와 교류, 공동의 '공동체영화 아카이브' 구성 추진

• 커뮤니티시네마 활동 발굴 및 지원

- 국내 다양한 생활문화 기반의 영화 동아리(Cine Club) 및 시민프로그래머 교육 등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시네마' 발굴과 육성
- 상시적인 '커뮤니티시네마' 발굴 육성 지원 조직 <커뮤니티시네마센터> 설치

2. '전국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계획

세부사업 4. 상호 부조 부문

• '커뮤니티시네마' 자립과 자치 운영을 위한 자금 조성

- 시민사회 연대 기금 연계 및 '커뮤니티시네마 네트워크' 내부 기금을 조성, 지역 커뮤니티시네마의 성장 주기에 따른 지원
- 조합원 대상, 긴급 운영자금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내부 금융 융자

• '커뮤니티시네마' 상호 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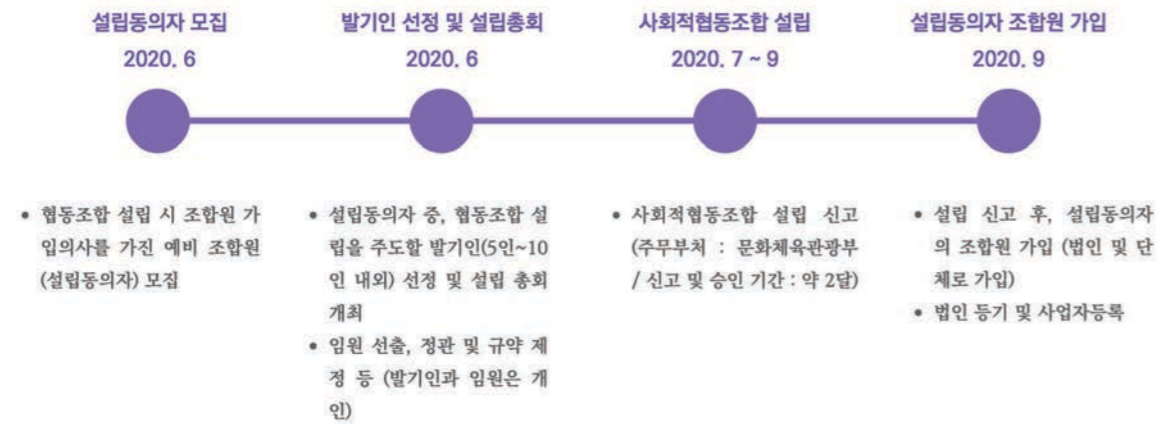
- 각 조합원 단체 및 주요 활동가의 경조사 및 생활 부분에서 필요한 자금 부조 (모두를위한극장 '여성조합원 기숙사' 등등)
- 각 조합원 단체 별 역량 강화 활동(행사, 연수, 교육 등) 지원

• '커뮤니티시네마' 참여 활동가 사회 복지 지원

- 커뮤니티시네마 단체 소속 활동가의 사회보험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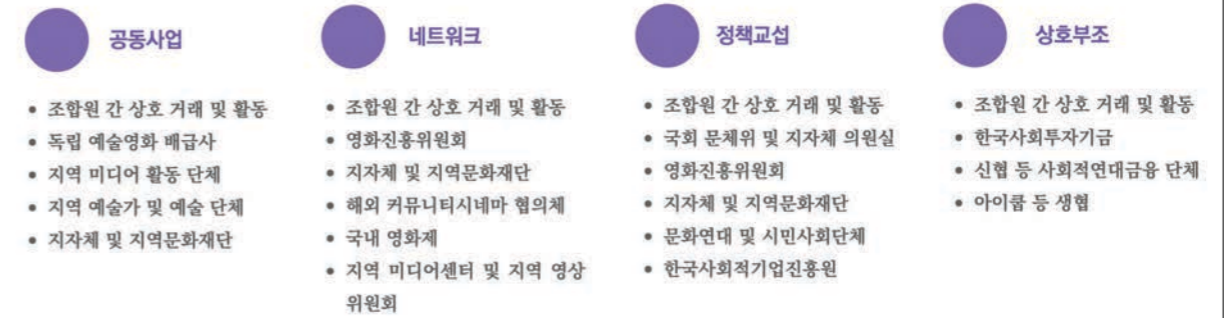
2. '전국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계획

설립 추진 체계



2. '전국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계획

사업 협력 체계



2. '전국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계획

조합원 참여 세부 자격

- 공통**
 - 조합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조합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에 약속하는 자
 - 조합원의 책임과 권리 :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로 이루어지며 '출자 및 조합회비 납부 책임', '조합의 이용 책임과 권리', '1인 1표 및 조합 경영 참여 권리', '임원과 대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등
- 생산자 조합원**
 - <지역 활동 생산자 조합원> :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동체 기반의 영화문화활동 법인 또는 단체
 - <지역 매개자 생산자 조합원> : 지역 커뮤니티시네마와 연대 협력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기타 조합원**
 - 직원 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노동자로 정관 및 규약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취득한 자 (근속기간 및 출자액)
 - 후원자 조합원 : 조합의 후원회원 중, 조합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비율 제한)
 - 소비자 조합원 : 조합의 관객회원 중, 조합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비율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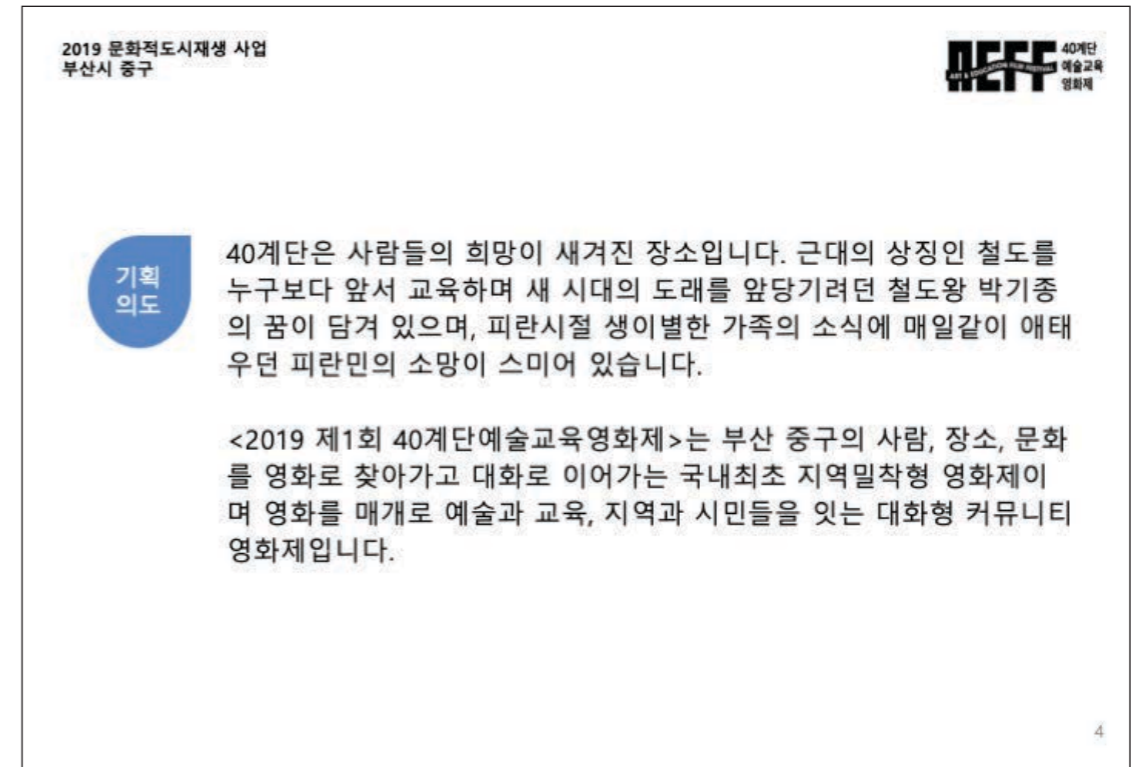
2. '전국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 활동 계획

전망과 효과

- 문화적 관점**
 -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영화문화활동의 주체 등장으로 인한 영화문화의 새로운 활력과 지역문화의 저변 확대
 - 생활문화의 중심에서 지역의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영화문화의 요구 수용과 새로운 관객 및 프로그램 개발
- 사회적 관점**
 - 영화를 매개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 기반의 문화활동을 통해 영화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역할 제고
 - 지역분권의 새로운 시민 가치 활동에 대응하는 다양한 담론 제공
- 경제적 관점**
 - 반복되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시민과 관객이 영화문화와 산업 생태계 변화의 주도적 역할자로서 새로운 시장 효과 창조
 - 커뮤니티시네마의 규모 확대와 네트워크를 통해 독립예술영화 등 다양한 영화의 대안적 배급유통망 확보

부록. 국내외 커뮤니티시네마 활동 사례

01. 모퉁이극장



- 성격** 부산 중구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장소를 영화로 찾아가고 대화로 이어보는 '시민 밀착형 영화제'
- 비전** 시민 밀착형 커뮤니티 영화제 만나고 배우고 소통이 이는 떠들썩한 영화제 거리, 식당, 점빵에서 먹고 마시며 감상하는 영화제
- 슬로건** '배우고 때때로 영화보니 기쁘지 아니한가'
예술교육영화제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를 사랑한 현자, '공자'의 문장처럼 '배우는 즐거움'을 영화로 나누고자 합니다.

땡땡씨네 OOCinema
일곱 가지 색채로 빛나는 일곱 명의 땡땡씨네 땡땡씨네는 중구 지역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역밀착형 상영섹션으로 주민이 프로그래머가 되어 영화를 선정하고 일곱 가지 이야기가 담긴 영화가 펼쳐집니다.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친 영화를 극장이 아닌 생활 공간에서 상영하는 '지역 밀착형' 영화 프로그램입니다.



- 성격** 부산 중구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장소를 영화로 찾아가고 대화로 이어보는 '시민 밀착형 영화제'
- 비전** 시민 밀착형 커뮤니티 영화제 만나고 배우고 소통이 이는 떠들썩한 영화제 거리, 식당, 점빵에서 먹고 마시며 감상하는 영화제
- 슬로건** '배우고 때때로 영화보니 기쁘지 아니한가'
예술교육영화제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를 사랑한 현자, '공자'의 문장처럼 '배우는 즐거움'을 영화로 나누고자 합니다.

랑데부 시네마 rendezvous Cinema
영화를 통해 만나고 교류하는 만남의 극장 랑데부는 우주선을 연결하기 위해 만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랑데부씨네 마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안적인 흐름을 만들어 온 단체, 활동가, 개인들을 영화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랑데부씨네마의 주인공들은 영화제에서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고 우정의 네트워크를 쌓아가며, 차기년도 영화제의 선정위원으로 파트너십을 갖고 지속적인 연대를 모색합니다.



부록. 국내외 커뮤니티시네마 활동 사례

02. 오오극장

2019 문화적도시재생 사업
부산시 중구

NEFF 40계단 예술교육 영화제

생강 극장
My Funny Cinema

생생하고 강렬한 영화의 배움
생강 극장은 '생생하고 강렬한 영화의 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안학교를 컨셉으로 '공부하려면 중앙동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초청된 문화예술가, 교육활동가들이 프로그래머가 되어 상영작 선정과 관객토어를 진행합니다.

대구지역 커뮤니티시네마 활동 현황
오오극장 그리고 우리마을영화관

권현준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대구경북영화영상사회적협동조합)

2019 문화적도시재생 사업
부산시 중구

NEFF 40계단 예술교육 영화제

달빛 영화관

가을밤 야외영화관람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찾아오는 9월의 가을밤, 추억을 간직한 40계단 문화관광테마거리에서 만나요.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보며 40계단에서 잊지 못할 추억과 낭만을 만드세요.

10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01 운영주체
대구경북영화영상사회적협동조합

02 개관일
2015년 2월 11일

03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규모 : 55석 상영관 1개관, 커뮤니티카페 삼삼다방, 비디오룸

오오극장 상영관 (55석)



오오극장 홀



커뮤니티카페 삼삼다방 (20석)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은 영화관!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의 10가지 특별함

1



지역 최초의
독립영화전용관!

+2



함께 만드는
공공의 영화관!

+3



로컬시네마!

+4



커뮤니티시네마! 함께
만드는 상영시간표

+5



시민제작자와
함께하는 영화관!

$1+2+3+4+5+6+7+8+9+10 = 55$

+6



커뮤니티카페
삼삼다방

+7



취향의 공동체!
상상오월 기획전들!

+8



독립, 인디예술과
어울리는 영화관

+9



무한한 가능성의
자유로운 영화관!

+10



어떻게 성장할지
알 수 없는 영화관

오오극장 관객프로그램

- 1년 단위 모집, 6 ~ 8명
- 관객프로그램어 초이스 (월 1회)
- 관객프로그램 영화제 (연 1회)
- 리뷰, 모더레이터



오오극장 기획전



오오극장 관객프로그램



오오극장 기획전



오오극장 기획전

홀리스 영화 특별전

2016. 12. 16(금)~17(토)
 독립영화진흥원 오오극장(안양시 안양4동 449)
 12. 16 (금) 19:00 김 황준의 물가리 (2011, 15분)
 12. 17 (토) 19:00 무의심 (2016, 19분)
 19:00 사월의 신단 (2011, 19분)
 19:00 황준의 물가리 (2011, 15분) + 10월 19일 19:00
 19:00 물의 제안 (2016, 15분)

11. 홀리스영화특별전, 12. 오오극장
 12. 홀리스영화특별전, 13. 홀리스영화특별전

당신의? 집은 안녕한가요

전쟁과 여성 특별전

그녀들의 이야기

2018 8/16. ~ 8/22.

8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광화문 홀리스홀에서 진행되는 기획전입니다. 기획전은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19:00에 시작되며, 관람료는 5,000원입니다.

오오극장 053-425-3553 55cinema.com

그리고 싶은 것: 낯, 22, 여름호지,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 크리스마스

오오극장 기획전

55 오오극장

대구 독립영화

2017

12.16 - 17

年末精算

연 말 정 산

2018

대구 독립영화 2018

{연말정산}

12월 14일(토)~15일(일) 독립영화진흥원 오오극장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5,000원
 12월 15일(토) 18:30 영화제에 16:45 입장
 12월 16일(일) 14:30 영화제에 16:45 입장

문의 053-425-3553 / 55cinema.com

오오극장 기획전

세월호 참사 3주기 특별전

2017. 04. 10. 월 ~ 04. 16. 일

독립영화진흥원과 오오극장

4/10(월) 4/11(화) 4/12(수) 4/13(목) 4/14(금) 4/15(토) 4/16(일)

4월 10일 19:00 세월호 참사 3주기 특별전 (12부작)

4월 11일 19:00 세월호 참사 3주기 특별전 (12부작)

4월 12일 19:00 세월호 참사 3주기 특별전 (12부작)

4월 13일 19:00 세월호 참사 3주기 특별전 (12부작)

4월 14일 19:00 세월호 참사 3주기 특별전 (12부작)

4월 15일 19:00 세월호 참사 3주기 특별전 (12부작)

4월 16일 19:00 세월호 참사 3주기 특별전 (12부작)

문의 053-425-3553

함께 해서 더 맛있고,

나와 너의 관계

2016년 11월 10일 (목) ~ 11월 11일 (금)

오오극장 55cinema.com

11월 10일 목요일 18:50 #이영애의미용사 - #이영애의미용사 (2011) 20:20 #사바니즘 <한신>

11월 11일 금요일 17:30 #대중음악 <38.5의 추억> 18:50 #이영애의미용사 <이영애의미용사 (2011)> 20:20 #사바니즘 <한신>

문의 053-425-3553

대구지역 커뮤니티시네마 네트워크 구축 사업

우리마을영화관

01 사업내용

- 대구지역 커뮤니티시네마 활동 공동체 간 네트워크구축
 - 공동체들의 정기적인 상영활동 기반 마련
- 지역 제작 콘텐츠의 유통 활성화 및 독립예술영화 상영기회 확대
 - 지역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
- 상영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워크숍을 통한 상영활동가 양성

대구지역 커뮤니티시네마 네트워크 구축 사업
우리마을영화관

02 사업현황

○ 2018년

- 참여공동체 : 5개 / 마을기반 공동체
동네책방 00협동조합(달서구/성서), 빈둥빈둥(남구), 안심협동조합(동구), 햇빛따라 도서관(서구),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술위원회(청년)
- 상영회 진행 횟수 : 8회
- 상영프로그램 : 지역 단편영화

○ 2019년

- 참여공동체 : 9개 / 마을기반 공동체 및 청년, 복지 등 의제별 공동체
더나눔협동조합(중구), 안심협동조합(동구), 햇빛따라 도서관(서구), 대구여성영화제(북구), 시지마을공유공간 특특(수성구), 동네책방 00협동조합(달서구/성서), 메세지팩토리(달서구/두류), 대구사회복지영화제(북지),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술위원회(청년)
- 상영회 진행 횟수 : 35회 ~ 40회
- 상영프로그램 : 지역영화, 독립/예술영화, 고전영화 등

동네책방00x성서공동체FM



우리마을 영화관

조금은 특별한 이웃
성서지역 이주민들과 함께

- 상영작품 -

엄마 보고싶어

나빌린드나(미국, 2016)

목따르 마마

호반방앗간(미국, 2016)



주최: 동진문화재단, 대구여성영화제
주관: 동진문화재단, 성서공동체FM
후원: 대구여성영화제, 성서공동체FM, 성서공동체FM

대구지역 커뮤니티시네마 네트워크 구축 사업 (우리마을 영화관)

함께하는 영화제

- 일시: 11월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장소: 동네책방00협동조합 대구 달서구 신원로37길 15-100(4층)
- 관람료: 무료 | 신청: <https://joy.kr/f79w>
- 문의: 동네책방00협동조합 010-5586-7083

11/5	11/12
11/19	11/26

Best Films

주최: 동진문화재단/대구여성영화제
주관: 동진문화재단/대구여성영화제 / 대구여성영화제 / 대구여성영화제 / 대구여성영화제 / 대구여성영화제
후원: 동진문화재단, 대구여성영화제

대구지역 커뮤니티시네마 구축 우리마을 영화관
대구여성영화제 찾아가는 상영회

<p>1회 10월 11일(금) 오후 3시 장소: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132호</p> <p>다섯 번째 계절 쿼터 053 장민철 감독 박민철 감독</p> <p>GV: 박문철 감독, 카빈스 최민, 배진호 대구여성영화제 조직위원장 특별: 박경희 대구여성영화제 위원장</p>	<p>2회 10월 14일(월) 오전 10시 장소: 대구여성영화제 강연실</p> <p>2019 주민영상제작교실/지역 주민 시사회 *강연: 동상아름 연재영(2019년 연구), 영화를 만들다 이영민(2019년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0여 년 전의 그곳에서 오늘 이영민 공무원 노동조합 그것을 알려주어 이영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이영민 나의 사춘기 영민 어름나기 박송하 천년 후에 이영민
<p>3회 10월 14일(월) 오후 2시 장소: 대구여성영화제 강연실</p> <p>2012-2018 주민감독 영상 시상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fter School 주윤정 미혼, 두 번째 사춘기 장명희 갈남이 임선비 만드는 사람들 오현주 	<p>4회 10월 15일(화) 오후 5시 장소: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132호</p> <p>피르케 To See 임소라 감독 박민철 감독</p> <p>GV: 라미 한국여성영상제작교실 연구사 서우국(경남) 특별: 육주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수</p>

| 주관: 대구여성영화제(053-311-9001)
| 주최: 대구여성영화제,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경북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카빈스, 대구여성미디어센터
| 후원: 영화진흥위원회, 대구광역시

제8회 대구여성영화제
2019.10.31 롯데시네마 프리미엄 칠곡
2019.11.1~11.3 롯데시네마 프리미엄 안경관

대구지역 커뮤니티시네마 네트워크 구축사업 - 우리마을 영화관

두류극장 영화제

인싸이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들

대상: 두류동 주민 누구나
활동: 영화 관람 및 강연 진행
문의: 김운정 010-5294-6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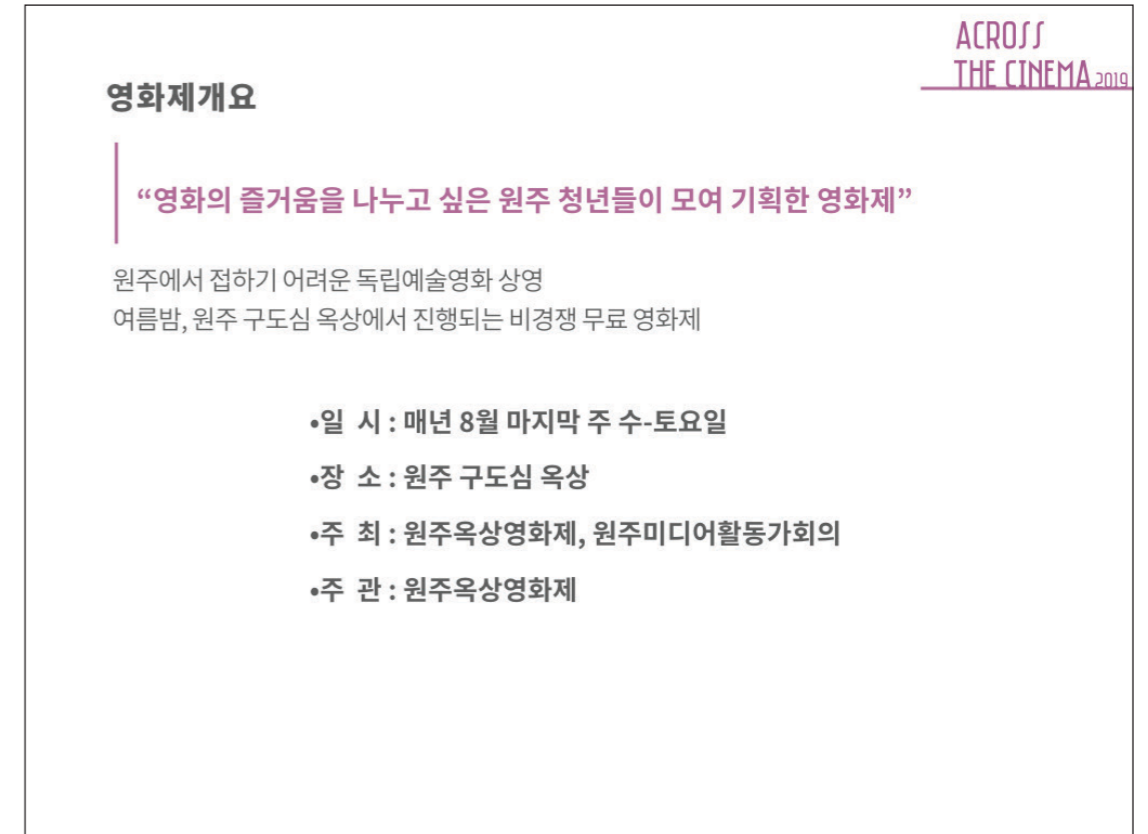
주최: 대구지역여성영화제, 두류동 주민센터, 아름다운 사람들, 대구여성미디어센터

후원: 영화진흥위원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삼익산업진흥조합

<p>1회 계춘말랑 * 10. 23 (수) 18:00-22:00 * 10월 23일(수) 18:00-22:00 * 프로그램 1심 대상 무용수 3명</p> <p>[한국거울 2019년식] * 10월 23일(수) 18:00-22:00</p> <p>GV: 계춘말랑</p>	<p>2회 보희와 녹양 * 10. 30 (수) 19:00-22:00 * 10월 30일(수) 19:00-22:00 * 10월 30일(수) 19:00-22:00</p> <p>[영화제] * 대구여성영화제 지역예선 대회</p> <p>GV: 보희와 녹양</p>
<p>3회 수성못 * 11. 16 (토) 14:00-18:00 * 11월 16일(토) 14:00-18:00 * 11월 16일(토) 14:00-18:00</p> <p>[영화제] * 대구여성영화제 지역예선 대회</p> <p>GV: 수성못</p>	<p>4회 재키 * 11. 20 (수) 19:00-22:00 * 11월 20일(수) 19:00-22:00 * 11월 20일(수) 19:00-22:00</p> <p>[영화제] * 대구여성영화제 지역예선 대회</p> <p>GV: 재키</p>

부록. 국내외 커뮤니티시네마 활동 사례

03. 원주옥상영화제



영화제개요

“영화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원주 청년들이 모여 기획한 영화제”



2019 원주 옥상영화제
Wonju Rooftop Film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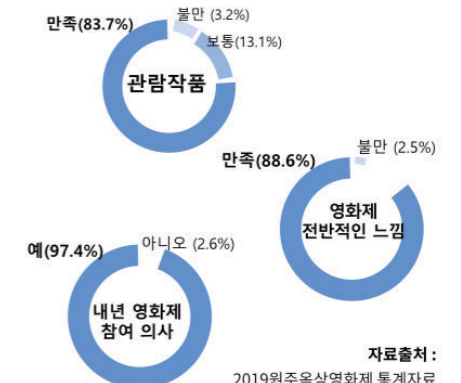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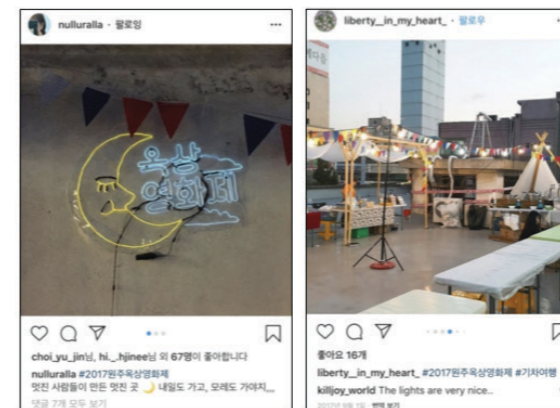
상지대학교 한의학관 옥상 |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모두극장(모두밤샘 색신만 해당)
8월 28일(수) ~ 31일(토)

8.28 (수)	8.29 (목)	8.30 (금)	8.31 (토)
19:00 개막식	14:00 영사다방 [영화물 서평하는 다양한 방법] 작업방을 알려주세요 씨, 내, 밀	15:00 옥상단편 유월 눈물 노랑대첩 눈치돌기 관객과의 대화	15:00 옥상단편 핑크메이 탈보 움직임의 사진 대리시범 레오 관객과의 대화
19:00 강원단편선 1 그러라니 집착 작은 영화관 금요일에 만나요 관객과의 대화	20:00 옥상장편 종업 관객과의 대화	22:20 옥상장편 이강	22:20 옥상장편 나는보리 관객과의 대화
19:00 강원단편선 2 여름비 81 책갈피 대리 자유와 꽃 관객과의 대화	22:40 옥상단편 고주 편문집 에어컨 여고생의 기묘한 차용학습 필리는 이야기 관객과의 대화	24:40 모두밤샘 모두극장 오늘도 평화로운 올 미 바이 유어 네임 하녀(1960)	

기획의도

- # 독립예술영화 상영 지역 내 영화문화 저변확대
- # 지역영화활동가 영화문화인력 발굴 / 자생성 확장
- # 강원권 감독 상영의 기회 제공, 교류의 장 마련
- # 구도심 문화 활성화 시민들에게 구도심의 매력을 전달

원주옥상영화제
2019 원주옥상영화제가 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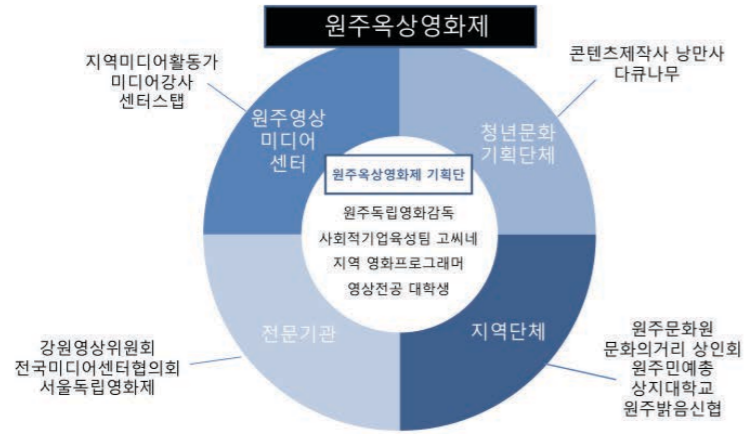


	2017년	2018년	2019년
관람객수	776명	620명	1,063명
상영편수	8회 상영(장단편영화 16)	9회 상영(장단편영화 21)	9회 상영(장단편영화 28편)

원주옥상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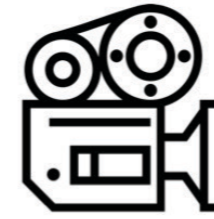
원주옥상영화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 청년 · 전문기관 및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



원주옥상영화제

지역영화제의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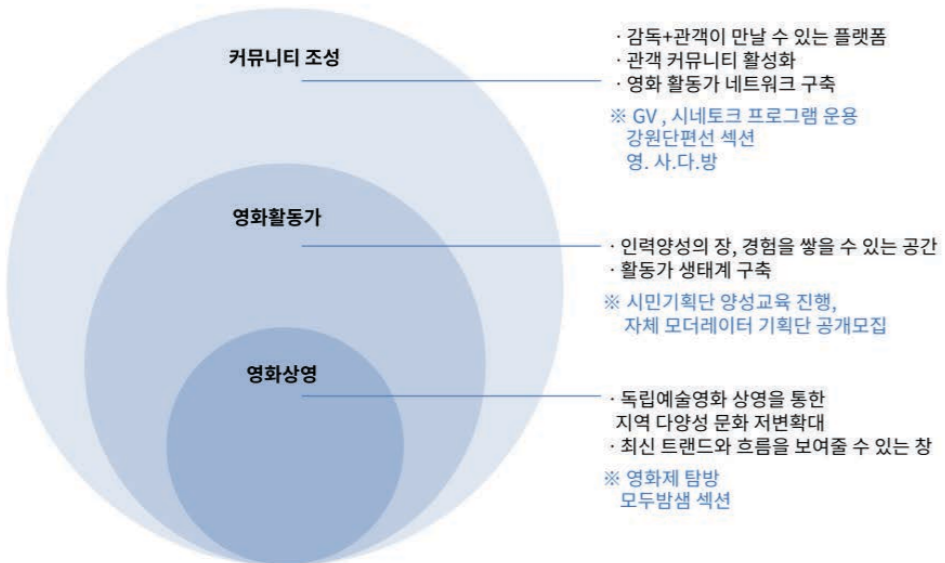
지역영화제



영화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창
사람과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그라운드

원주옥상영화제

지역영화제의 역할



원주옥상영화제

조금 더 멋진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

기획단 역량 강화 워크숍 진행

- 전주국제영화제, 인천 디아스포라 영화제, 정동진독립영화제 등 지역 영화제 탐방
- 영화제 전문가 초청 및 워크숍 진행

	내 용	전 문 가
1	- 지역영화제가 살아남는 방법	박광수 (정동진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2	- 영화제 프로그래밍 및 자원활동가 운영 특강	설승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장)
3	-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 기획 및 홍보 특강	최윤현 (최계바라 기획사 대표)

- 각자 생업을 가진 사람들, “영화제”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
- 관객(시민)과 영화인, 영화관계자분들의 기대와 우리의 역량

원주옥상영화제

예산의 불확실성 그리고 인건비

1. 지원사업 및 지원규모액 : 4개 사업

사업명	지원규모액(원)
2019 원주옥상영화제	15,000,000
처음 쓰는 영화비평	14,000,000
강원 청년 영상인 교육 워크숍과 영상제	12,000,000
청소년 뉴시네마 페스티벌	9,000,000



'원주옥상영화제' 힘 받았다
원주투데이 - 2019. 8. 11.
강원영상위원회는 '2019 강원영상단체 자생지원사업' 최종심의를 통해 원주옥상영화제를 비롯해 강릉씨네마테크, 도프, 임영시네마 등 도내 4개 ...

- 외부공모사업에 높은 의존도 → 불확실성과 변동 가능성
- 기획단의 최소 생계 유지비, 활동비의 문제
- 지역영화제가 1년 상시 사무국이 될 수 있을까?

원주옥상영화제

"우리는 과연 계속 해 나갈 수 있을까?"

원주옥상영화제

매년 영화제를 어디서 열까?



2017원주옥상영화제
미로예술시장 옥상

2018원주옥상영화제
원주문화원 옥상

2019원주옥상영화제
상지대학교 옥상

-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서 영화를 상영해야 할까?
- 관객들을 어디로 모셔야 할까?
- 영화 상영의 최적의 장소는 어디일까?
- 건물 주인 눈치 안보고 공간을 구성할 수 있을까? + 민원은 없을까?

부록. 국내외 커뮤니티시네마 활동 사례

05. 일본커뮤니티시네마센터

일본에서의 커뮤니티 시네마

2019年11月2日

일반사단법인 커뮤니티시네마센터

이와사키 유우코

(번역 : 최명휘)

커뮤니티 시네마 전사

1980년대 후반 ~ 2000년대 지방 도시로 전개

1982年「나고야 시네마떼꼬」

1984年「포럼 야마가타」

1985年「시네원드」(니이가타)

1989年「시네마5」(오이타)

1994年「시네마 클레르」(오카야마)

1998年「시어터 키노」(홋카이도)

…2004年「시네마떼꼬 타카사키」

…2008年「시네마 일라」(하마마츠)

「시네마 오노미치」

커뮤니티시네마 전사

1980-90년대 미니 시어터의 발흥기

1982年「시네마스퀘어 토큐」「유로스페이스」

1983年「시네비반 록폰기」

1985年「시네세종 시부야」

1986年「시네마라이즈 시부야」

1987年「상떼 시네 1·2」

1989年「르 시네마」

…2000年「시어터 이미지 포럼」

…2019年「업링크 키치조지」

커뮤니티 시네마 전사

영화 전문시설이 차례로 개관

1970年 도쿄국립근대미술관 필름센터 개관
(현 국립 영화 아카이브)

1982年 히로시마시 영상문화 라이브러리

1983年 교토 문화 박물관

1988年 가와사키시 시민 뮤지엄

1996年 후쿠오카시 종합도서관

1995年 도쿄도 사진미술관

1996年 고베 아트빌리지 센터

2000年 센다이 미디어떼꼬

2003年 야마구치 정보예술센터 (YCAM)

2007年 고베 영화자료관

2007年 가와사키시 아트센터

커뮤니티 시네마 전사

(1) 국제영화제

- 1980년대 중반 이후
 - 도쿄국제영화제 (1985 ~)
 -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989 ~)
 - 히로시마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1985 ~)
 -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1990 ~)
 - 아시아포커스후쿠오카영화제 (1991 ~)
 - 2001년 도쿄필맥스
 - 2005년 오사카아시안영화제

(2) 국내영화제

- 70년대 ~ 80년대 전반
자주상영 발전형의 영화제
湯布院映画祭/高崎映画祭/水戸映画祭/ヨコハマ映画祭等...
- 80년대 후반 ~ 90년대 이후
자치체 등이 주최가 되어 개최하는 영화제
しんゆり映画祭(川崎市)/あいち国際女性映画祭/調布映画祭/TAMAシネマフォーラム/あきた十文字映画祭/函館港イルミネーション映画祭等々
- 2000년대 이후도
디지털화의 진행과 함께 여러 영화제가 차례로 탄생

2001년 12월

「문화예술진흥기본법」 공시
영화는 미디어 예술의 한 가지로서 위치지어짐

2003년 4월

「영화 진흥에 관한 간담회」가
「지금부터의 일본영화 진흥에 대해서」라는 제언을 발표
「비영화관도 활용한 상영기회 확대」
「어린이의 영화감상 보급 추진」이 게재됨

커뮤니티시네마센터의 설립

1996년부터 「영화상영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

1996년부터 매년 1회 “영화상영네트워크회의”를
일본 각지에서 개최하여, 공공적 상영활동의 진흥에 대해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영화 환경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
전국에서 여러 상영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의논을 진행

2001년 ~ 2002년, 국내외에서 「영화상영」에 대해 조사 실시-

2001년부터 2년에 걸쳐,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한국에서의
공공상영활동과 공적지원방식을 조사.
일본에서의 공공적 상영활동을 담당하는 비영리조직으로서의
“커뮤니티시네마”와, 상영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이상적 방식을 명확히 함.

2003년 “커뮤니티시네마 선언!”

2002년

- 기후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커뮤니티시네마”의 개념을 제기

2003년 9월

- 오사카에서 진행된 회의의 주제는 “커뮤니티시네마 선언!”

- “커뮤니티시네마” 활동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직 「커뮤니티시네마 지원센터」 설립을 발표

2009년 4월

- 일반사단법인 커뮤니티시네마센터 설립

- <http://jc3.jp/wp/>

커뮤니티시네마란

영리·비영리를 떠나서,
커뮤니티시네마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한 그것을 지원하는 단체

커뮤니티시네마의 목적

상영환경의 지역격차 시정과 상영작품의 다양성 확보

다양한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상영기회 제공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등 교육적 사명을 실현하는 것

지역에 대한 공헌

다양한 영상작품 상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풍부한 영상문화를 뿌리내리게 한다.
지역주민에게 유연한 감상능력과 창조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커뮤니티시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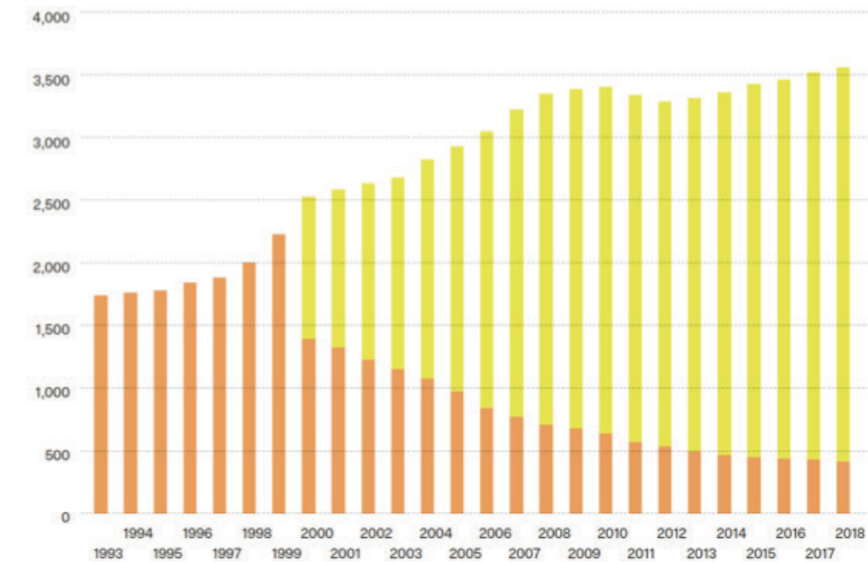
- 멀티플렉스 이외의 영화관
미니시어터 : 125관 · 200스크린
- 시네마떼끄 : 16관
- 영화제 : 180 이상
- 공공 홀 :
- 자주상영/시네클럽 :

커뮤니티시네마센터 가맹단체

<http://jc3.jp/wp/members/>

- 멀티플렉스 이외의 영화관
미니시어터 : 39관 • 57스크린
 - 시네마떼끄 : 11관 • 11스크린
 - 영화제 : 8단체
 - 자주상영/시네클럽 : 20단체
 - 공공 홀 및 그 외 : 10단체
- 합계 88단체 (준회원 포함)

스크린 수(영화관 수)



커뮤니티시네마센터

15

커뮤니티시네마센터의 업무

- ◆ 전국 커뮤니티시네마 회의 (작년 약 300인 참가)
- ◆ 여러 워크숍
- ◆ 프로그램 순회
ex) 와이즈만 특집, 올리베이라 특집, 조지아 영화제, F시네프로젝트, 어린이와의 영화 프로그램 등
- ◆ 시네마 엘 도호쿠 (피해지 지원)
- ◆ 조사 사업
- ◆ 정보 공유
- ◆ 상영진흥책 실현을 향해...

여러 해외 국가와의 비교 [개봉 수] Comparison with Foreign Countries -Number of Films Released in 2017

	국내영화 Domestic	해외영화 Foreign	합계
한국 Korea	494	1,271	1,765
	28%	72%	
일본 Japan	594	593	1,164
	50%	50%	

参照: KOFIC, 映画



교토 데마치자 2017년 12월 개관



후지사와시 시네코야
2017년 4월 개관

시네마 데 아에루
(이와테현 미야코시)
2017년 ~



다카다세계관
(니이가타현 조에츠시)
2015년 상시상영 개시





커뮤니티시네마 네트워크 2020

;자립과 연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모험

발행일	2020년 6월 17일
펴낸곳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전자우편	cine4all.coop@gmail.com
페이스북	facecook.com/cine4all
인스타그램	@mogeukjang